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홍 덕 선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가 1979년 11월 창립된 지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학회가 처음 발족했던 당시 국내 영문학계는 전문 소학회가 불모지였던 시기였지만, 창립을 주도하신 김종건 교수님을 비롯하여 학계의 몇 분들께서 큰 뜻을 품고 우리 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80년대에 들어서야 국내에서 전문 소학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우리 학회의 출범은 국내 학계의 발전에 큰 몫을 한 셈입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30년 동안 학술 발표회, 학회지 발간, 조이스 여름방학 특강, 국제학회 개최, 『올리시스』독회 모임 등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국내의 조이스 연구에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학회를 거치지 않은 국내의 조이스 연구자들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김종건 교수님의 개인적인 열의로 일찌감치 조이스의 전 작품이 모두 번역되었으며, 그밖에도 몇 분들이 조이스의 개별적 작품들을 새롭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이스 연구서도 놀랍도록 많이 출판되어, 단순히 양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셰익스피어를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개별 작가의 연구서보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연구의 질적인 면에서도 이들 연구서는 뛰어나 조이스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확대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회의 학술지 『제임스 조이스 저널』은 국내 조이스 연구의 중심체입니다.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이 학술지를 통해 매년 약 20~25편 가량의 논문이 조이스의 작품을 도전적인 이론으로 새롭게 해독해내고 있습니다. 학회 첫 창립과 함께 시작한 이 학술지는 잠시 발간을 멈추었지만 1996년부터 다시 발간을 시작하여 15년간 꾸준히 국내 조이스 연구를 응집시키는 중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지는 조이스 연구 외에도 조이스 연구에 필요한 동시대의

모더니즘 작가들, 그리고 아일랜드 작가들에 대한 연구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 호응하여 2003년부터는 한국버지니아올프학회에서도 적극 논문을 기고해주어 우리 학술지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우리 학회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는 국제학회는 동아시아 지역의 조이스 연구자들을 한데 모으는 고유의 특색을 자랑합니다. 주로 일본, 대만, 중국의 조이스 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각 나라의 조이스 연구 정보를 서로 나누는 등 일종의 동아시아 조이스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 학자들의 큰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정도 높아 동아시아 국제학회가 있을 때마다 유럽과 미국 조이스 학회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활동 중의 하나는 “『율리시스』독회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매달 셋째 토요일 15~20명가량의 회원들이 모여 『율리시스』를 첫 행부터 정독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독회 모임을 시작한지 약 4년 만에 현재 『율리시스』의 반이 조금 넘는 분량을 읽어가고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끈질기게, 꼼꼼하면서도 즐겁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무엇보다 우리 학회의 초석을 깔아놓았던 창립자들의 남보다 앞선 학구적인 비전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창립 30년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청년기를 막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 성숙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영문학계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학회의 앞길에도 더욱 도약해나갈 일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학회 회원들의 열의가 뭉쳐 30년간 숙성시킨 귀한 전통이 있기에, 우리 회원들은 믿음과 자신감으로 학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학회의 학술지 발간, 국제학회 개최, 독회 모임 등에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학회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어영어영문학회와 여러 전문 소학회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09. 6. 20.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회장